

## 대구시 수성구 옥수천에서 산출되는 용각류 공룡발자국

박두광<sup>1\*</sup> · 임성규<sup>2</sup>

(대구 성명여자중학교<sup>1</sup> ·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<sup>2</sup>)

최근 대구시 수성구의 소하천인 옥수천의 하상에서 발견된 용각류 공룡 발자국을 보고한다. 발자국이 발견된 곳은 옥수교에서 약 400m 상류의 하상이며 이곳은 경상누층군 반야월층의 흑색세일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층후는 약 4m이다.

상부에 2개의 층준에서 용각류 공룡의 보행열이 각각 하나씩 산출되며 두 층준 사이는 12cm이다. 하부 층준의 보행열은 pes가 5개, manus가 4개로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pes는 약 5cm깊이로 산출되나 manus는 희미한 윤곽만 나타난다. pes의 길이와 폭은 각각 25cm와 19cm이며 manus의 길이와 폭은 각각 12cm와 16cm이며 pes의 보폭은 약 50cm이다. 그리고 보행열의 방향은 60°이다. 상부층준의 보행열은 pes가 5개, manus가 2개로 모두 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pes와 manus 모두 희미한 윤곽만 나타난다. pes의 길이와 폭은 각각 25cm와 19cm이며 manus 길이와 폭은 각각 13cm와 15cm이며 pes의 보폭은 약 52cm이다. 그리고 보행열의 방향은 78°이다. 두 보행열의 주인공은 소형 용각류(체장 약 70cm)이며 narrow gauge의 모양으로 보행하였다.